

농흉의 임상적 고찰

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

조삼현·김증호·나국주·안병희·오봉석·김상형·이동준

농흉이란 흉막강내에 화농성 감염에 의해서 농성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저류된 상태를 말한다. 의술과 항생제의 발달, 그리고 문화, 경제의 발전으로 빈도가 현저히 줄어지는 듯 하나, 그 수에 있어서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. 그 이유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의 감염 및 혼합감염에 의한 농흉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농흉에서는 외과적 치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. 급성에서는 농흉의 원인 제거 및 배농에 의한 농흉강 폐쇄를 목적으로한 여러가지 치료방법이 보고되어 있고, 만성농흉에서는 배농후 비후된 흉막의 박피 및 사강의 제거를 근간으로 한 여러가지 치료방법이 보고되어 있다.

본 교실에서는 1989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임상적 추이가 가능하였던 108례의 농흉환자의 임상적 소견 및 치료성적을 분석하여 보고 하는 바이다. 관찰대상으로는 4개월 부터 74세까지의 남자 92명(85.0%), 여자 16명(15.0%)으로 구성 되어있다. 우측과 좌측의 비는 1.1:1로서 별 차이가 없었고, 임상증상으로는 유소아에서는 발열, 기침 및 객담이 주증상이었고, 성인에서는 흉통(45.4%), 호흡곤란(42.6%), 발열(25.9%), 기침 및 객담(25.9%)순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. 기저질환으로서 폐결핵(27.8%), 흉부외상후(12%), 수술후 합병증(12%), 폐렴(10.2%) 등 이었고 원인 불명이 27.8%였다. 세균학적 검사상 녹농균(17.6%), 포도상구균(7.4%), 연쇄상구균(3.7%)순으로 나타났고, 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가 55.6%였다. 수술 방법으로는 흉강천자 11명(10.2%), 폐쇄성 흉관삽관술 44명(40.8%), 늑골절제에 의한 배농 2명(1.9%), Eloesser씨 술식 11명(10.2%), 박피술 30명(27.8%), 폐절제를 동반한 박피술 2명(1.9%), 흉곽성형술 5명(4.6%) 등이 사용되었다. 치료방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, 11명의 환자에서 흉강천자만으로 많은 호전을 보였고, 폐쇄성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83명중에서 34명(41.0%)에서 치유되었고, 호전되지 않았던 환자중 Eloesser씨 술식(11명) 또는 늑골 절제에 의한 배농(2명)을 시행하였는데 9명(69.2%)에서 호전되거나 그 상태로 외래 추적 중인 반면 2명은 흉곽성형술을, 1명은 재수술을 받았다. 28명의 환자에서 박피술을 시행하였는데 26명(93.0%)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. 기관지 늑막루를 동반한 5례에서 3례가 수술후 좋아졌다. 농흉에 대한 수술후 합병증은 10례에서 발생하였는데, 호흡부전 5례, 패혈증 3례, 급성 신부전 2례에서 나타났다. 사망은 5명(4.6%)이었는데 그 원인은 주로 다른질환과 동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, 1명은 식도암 수술후 신부전, 궤양성 출혈, 호흡부전에 의한 것이었고, 1명은 전이성 암에 의한 것이었고, 2명은 간경화의 합병증때문이었으며, 1명은 외상후 패혈증과 다발성 기관 부전때문이었다.